

미래 먹거리 농생명사업 탄력 붙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1조 233억 반영
도,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6건 추진 청신호

전남도는 2022년 농업 분야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620억 원(6.5%) 늘어난 역대 최대인 1조 233억 원이 반영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신규사업으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촌 일자리 축소 건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실증연구서비스 지원 등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핵심사업 6건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쏠렸다.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겨울배추 주산지 및 절임배추 최대 생산지인 전남의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중국산 ‘알몸 절임’ 파문 등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1차년도 사업비로 4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수자원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2023년까지 168억 원이 투입될 농촌 일자리 축소 건립에 42억 원이 반영되면서 농촌 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의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이 접한 미래농업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투입할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 지원사업 40억 원, 창업보육 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6억 원이 포함됐다. 청년에게 영농·창업 기회를 주고, 기업에 전문 실증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농촌 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3억 원 등도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50억 원, 영산강 III·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53억 원 등 158개 사업 5,400여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 분야 국고예산이 농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건의를 통해 예산 증액과 함께 추가사업이 반영되도록 국고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국민지원금, 동 행정복지센터서 지급

오늘부터...혼잡 방지 위해 요일제 적용

광주시는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상생 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즉시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본인(지급대상자)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지급 첫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현장

접수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이의신청 접수를 위한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광주상생카드는 지급 대상 1인당 25만원권 1매로 지급된다. 연말정산, 분실재발급, 사용내역조회 등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은 광주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앱, 영업점을 통해 하고, 기명등록 후 분실한 경우 콜센터나 영업점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황애란 기자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의회 “전문성·자질 갖춘 인물인지 의문” 지적도

광주시의회가 김만수 초대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집행부로 넘겼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청문회 평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지난 33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경력은 훌륭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청문 과정에서 복지 분야에 걸맞은 전문성과 자질을 갖



춘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 현장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관련 연구논문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청문보고서를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김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이용섭 시장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멘퍼스 찾아 애로사항 청취
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두 번째 일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인 ㈜멘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지역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멘퍼스는 사무용 가구 및 피트니스 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청년일자리제공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멘퍼스 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석 ㈜멘퍼스 대표는 “현재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 추세지만 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 자립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기존 사회적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의 지속적인 관심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기업 ㈜멘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과도 많이 닮

았다”며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멘퍼스의 공장동 생산시설 라인을 방문해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황애란 기자

추석 연휴 18~22일 영락공원 실내 추모관 폐쇄

망월·영락 실외묘지 정상 운영

광주시는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영락공원의 실내 봉안시설인 제1추모관과 제2추모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망월묘지와 영락공원 실외 묘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영락공원의 실내 추모관을 찾지 못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성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성묘는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로 접속하면 전화, 글 작성, 차례상 꾸미기,

지방 쓰기, 사회관계망(SNS)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정종임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영락공원 실내추모관을 폐쇄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은 비대면 온라인 성묘와 추석 연휴 전후로 분산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유튜브 특혜 의혹 강정희 도의원

▶1면에서 계속

A씨는 또 “해당 사무관이 주말에도 강정희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한 일도 있다”며 “탐제로백 대표와 사무관, 강 의원 세 명이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강 의원의 도정질문도 해당 사무관이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그대로 다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대변인실 소속 한 직원도 기자와 통화에서 “강 의원이 도정질문 전 직원들을 불러 탐제로백이 건설했던 기업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탐제로백이) 여수 업체로 지도 잘 아는 데 아주 건설하고 역량이 뛰어난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청년기업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도정질문에 앞서 언론 의혹을 확인하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20건의 수의계약

를 맺은 의혹들도 잇따르고 있다.

허위실적이 대표적이다. 탐제로백은 지난 3월 2일 2,178만원 규모의 ‘전남도 립미술관 개관식 행사대행 용역’을 수의 계약 하면서 실적 중 하나로 ‘2021년 도민과의 대화’ 행사를 기재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2021년 도민과 대화는 3월 12일부터 시작돼 열리지 않은 행사의 대형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탐제로백이 애초 실용음악 등 사업을 진행하다 영상물제작업 사업인고를 내고 계약을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전남도 뉴미디어팀은 물론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까지 직접 영상제작 교육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타 사업 진행 후 발생한 잔여 예산이 탐제로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농식품유통과 등 전남도 실국에서 의뢰한 콘텐츠들이 탐제로백에 물린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남도의 유튜브 외주 과정에서 탐제로백에 대한 몰아주기 의혹과 별개로 소위 ‘페이퍼 회사’와 수의계약, 부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입찰 담합 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자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절어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